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합니다

Korea NU10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KOREA NU10

K O R E A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1 0

DECEMBER 2024

VOL.26



MAIN ISSUE

국가거점 국립대, 더 큰 경쟁력으로 한 걸음 앞서나가다

Korea NU 10, One Step Ahead with Greater Competitiveness!

발 간 등 록 번 호

11-7000126-000051-08

ISSN 2635-411X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ver Story

국가거점 국립대, 더 큰 경쟁력으로
한 걸음 앞서나간다
Korea NU 10, One Step Ahead with
Greater Competiveness!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발행일 2024년 12월(통권 제26호)

발행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작 공디자인연구소(T. 051-796-6600)

Date of issue 12/2024 (Vol.26)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 051-796-6600)

메인 이슈 Main Issue

| | |
|---|-----------|
| 국가거점 국립대, 더 큰 경쟁력으로 한 걸음 앞서나간다 Korea NU 10, One Step Ahead with Greater Competiveness! | 04 |
|---|-----------|



K-NU10 뉴스 News

| | |
|---|-----------|
|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2024년 결산 “지역 교육 발전 위해 협력체계 강화” Evaluation Meeting of 2024 Korea NU 10 Presidents Council - Strengthen Cooperation for the Regional Education Development | 18 |
|---|-----------|



K-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 | |
|---|-----------|
|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 22 |
|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24 |
|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26 |
|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28 |
|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30 |
|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32 |
|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 34 |
|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 36 |
|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38 |
|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40 |

K-NU10 회원대학 소개

국가거점 국립대, 더 큰 경쟁력으로 한 걸음 앞서나가다

Korea NU 10, One Step Ahead with
Greater Competiveness!

KNU10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거점대학에서도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방식의 전환 등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AI, IoT, and VR. In response,
Korea NU 10 is striving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by adapting its educational methods for future
generations to align with these evolving trends.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 불평등 없는 화합의 장 '아카페라' 카페 개소 눈길 ESG 경영의 새로운 장 ... 15일 개소식 열고 본격 운영

제주대학교 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아카페라'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끈다. 특히 제주대는 차별, 불평등 없는 사회 조성에 앞장서는 등 ESG 경영에 적극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제주대는 산학협력관 1층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아카페라(A Cafe RA)' 개소를 시작으로 10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대에 따르면 아카페라는 2021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2022년 5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나눔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아래 탄생했다. 위치는 지난해 완공된 산학협력관 1층에 자리해 있다. 1층 총 면적 1949㎡ 중 카페 공간은 36.38㎡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총 2억 원을 투자해 현재 12명의 직원 중 1명의 매니저와 11명이 장애인 파트너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개소식에서는 김일환 총장과 장애인 파트너가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이라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함께 바리스타 시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일환 총장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내에 들어선 '아카페라(A Cafe Ra)' 카페는 국립대학의 ESG 경영방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거듭나기 위한 담대한 목표를 갖고 문을 열었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차별'이 아닌 이들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화합을 형성하는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는 아카페라 개소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NU, 'A Cafe Ra', Harmony with Equality New Chapter in JNU ESG Management, Full-scale Operation after Opening Ceremony

A Cafe RA, a standard workpla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has opened at JNU,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JNU is actively engaged in ESG management, taking the lead in creating a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The cafe began full operations on October, situated on the first floor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Center. A Cafe RA was initiated in June 2021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JNU and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The project was developed in May 2022 with the goal of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disabled individuals and promoting sharing and coexistence. To create a comfortable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disabled workers, JNU and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invested a total of KRW 200 million to open the cafe. Currently, it is operated by a team that includes one manager and 11 disabled partner staff.

At the opening ceremony, JNU President Kim Eel-hwan and a partner with disabilities held a barista demonstration together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respect.

President Kim stated, "A Cafe RA, part of JNU'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was opened with the bold goal of becoming an exemplary case where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operate to contribute to society in alignment with the ESG management policy of the national university." He added, "We hope this cafe will become a space for growth where we can foster harmony together, rather than discrimination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JNU plan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disabled individuals and further strengthen 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opening of A Cafe RA.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 융복합공동연구 국제학술대회(CCAT) 개최 17개국 석학 초청, 글로벌 인적 교류와 국제공동연구 확대

충남대학교가 글로벌 인적 교류와 상호 협력적인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전 세계 17개국 석학을 초청해 'CNU 융복합공동연구 국제학술대회(CCAT, CNU Conference of Advanced Technology)'를 개최했다.

충남대 융복합과학원은 11월 13-15일, 대덕캠퍼스 일원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7개국 석학 및 연사 100여명을 비롯해 충남대 11개 학과 교원 및 대학원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융복합공동연구 국제학술대회(CCAT 2024)'를 개최했다.

글로벌 인적 교류 향상과 상호 협력적인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진행된 'CCAT 2024'에서는 충남대의 9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의약 바이오', '디지털 농업', '차세대 에너지' 등 4가지 연구 세션을 조망했다.

11월 14일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노도영 원장이 '한국의 현재 과학 연구와 기초과학원의 역할' 주제의 기초 강연을 통해 한국 과학 연구의 현황을 조망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주도하는 과학

적 성과와 글로벌 혁신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김정겸 총장은 "CCAT는 글로벌 지식 교류의 장으로서 충남대와 세계 여러 국가의 연구진이 함께 국제 연구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충남대는 9대 특성화 분야를 바탕으로 학제 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복합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대 9대 특성화 분야: 방위산업, 미래모빌리티, 의약바이오, 디지털농업, AI-ICT, 반도체, 차세대 에너지, SDG 해결, 지역사회특화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ted the CNU Conference of Advanced Technology (CCAT) to Expand Global Human Exchange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ted the CNU Conference of Advanced Technology (CCAT), bringing together scholars from 17 countries to expand global human exchange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CCAT 2024 was held on November 13-15 at the Daedeok Campus by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nvergence Science Institute. More than 100 scholars and speakers from 17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S., China, Japan, and other countries attended, and more than 400 faculty members and graduate students from 11 departments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ticipated.

CCAT 2024 included four key research sessions, inclu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Medicinal Bio,' 'Digital Agriculture,' and 'Next Generation Energy,' centered 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nine specialization areas.

Dr. Do-Young Noh,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delivered a keynote lecture titled "Korea's Scientific Re-



search and the Role of IBS" at the opening ceremony on November 14. Dr. Noh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cientific research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cientific achievements and global innovation led by IB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Jeong-Kyoum Kim stated, "CCAT was a meaningful event that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researchers from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rving as a platform for global knowledge exchange." He adde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ill do its best to solve the challenges facing our society through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across its nine specialized fields."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nine specialization areas: defense industry, future mobility, medicinal bio, digital agriculture, AI-ICT, semiconductors, next-generation energy, SDG solutions, and community specialization.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 우수 연구진을 위한 '이달의 연구자' 및 CBNU Galaxia 제도 운영

충북대학교는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자 발굴을 통해 연구자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고, 자율적 연구환경 분위기 고취와 연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2년 3월 '이달의 연구자' 제도를 도입해 매달

우수한 연구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달의 연구자는 논문 발표 학술지의 피인용지수(IF) 및 학문분야별 IF값 상위 지수, R&D 수주, 기술이전, 학술상 등을 기준으로 매달 1-2명의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다. 첫 번째 선정자인 건축공학과 김민구 교수를 비롯해 현재까지 38명의 연구자가 선발됐다. 또한, 매년 학술연구(논문) 및 산학협력(기술이전)분야의 최우수 교원을 학교를 빛낸 스타 교수로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고, 연구자의 권위와 명예를 드높이며 산학협력 성과 확대를 위한 연구인력 풀을 구축하고자 CBNU Galaxia상을 시상하고 있다.

학술연구 분야는 최근 1년간 논문게재 실적 계열별 최상위 1인을, 산학협력 분야는 년 1억 원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교원을 선발한다. 이 상은 연구처 및 산학협력단 공동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분야는 2015년부터 29명의 교원을 선정, 그 중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 약학과 홍진태 교수 등은 3회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현액됐다. 또한, 산학협력 분야는 11명의 교원이 선정됐으며, 그 중 수의학과 김윤배 교수, 약학과 홍진태 교수, 미생물학과 김양훈 교수가 3회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현액됐다.

CBNU, Running "Researcher of the Month" & CBNU Galaxia for Outstanding Researcher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Koh Chang-seop) introduced the "Researcher of the Month" in March 2022 and has been selecting outstanding researchers every month to enhance the prestige and honor of researchers, promote an autonomous research environment, and improve research competitiveness by identifying

researchers with excellent research performance.

“Researcher of the Month” selects 1-2 researchers every month based on the Impact Factor (IF) of the academic journals, the top IF by academic field, R&D orders, technology transfer, and academic awards. To date, 38 researchers have been selected, including the first recipient, Professor Minku Kim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In addition, the CBNU Galaxia Award is given annually to the best professor in the fields of academic research (papers) an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technology transfer) to honor their achievements as star professors who have brought glory, to enhance the authority and honor of researchers, and to build a researcher pool for expansion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cademic research, the top one person in each department in terms of publications in the past year is selected, and in the field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 professor with a technology transfer record of more than 100 million KRW per year is selected.

This award is jointly hosted by the Research Office and th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enter. Since 2015, 29 professors have been selected in the academic research field, of which Professor Youngchul Choi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rofessor Jintae Hong of the Department of Pharmacy have been selected three times and inducted into the Hall of Fame. In addition, 11 faculty members were selected in the field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among them, Professor Yunbae Kim of the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Professor Jintae Hong of the Department of Pharmacy, and Professor Yanghoon Kim of the Department of Microbiology were selected three times and inducted into the Hall of Fame.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IPS 운영사」 선정으로 지역 창업과 혁신 생태계 선도

강원대학교는 강원지역 대학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 운영사」로 선정되며 지역 창업과 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IPS는 민간 투자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사가 선발한 창업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최대 7억 원까지 지원한다.

강원대학교기술지주는 약 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하여 지역의 기술 기반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대학교기술지주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 생식기관을 모방한 ‘랩온어칩’ 기술로 난임 치료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주)커스토젠은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원대는 또한 ‘KNU 콜라보 플랫폼’을 통해 창업기업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며, 창업 초기 기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Post-BI)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재연 총장은 “TIPS 운영사 선정을 계기로 강원대학교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거점대학으로서 강원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elected as 「TIPS Operator」, innovating the local entrepreneurship

Kangwon National University(KNU)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central axis of the regional startup and innovation ecosystem by being selected as the first university in the Gangwon region to operate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TIPS is a program in which private investors and the government collaborate to discover and nurture promising startup companies, providing up to 700 million KRW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ommercialization, and overseas marketing funds to the selected startup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chnology Holdings Co., Ltd. manages a fund of approximately 15 billion KRW and offers initial investments and customized support at each stage to help promising startups in the region to grow steadily. In particular, together with Gangwon State’s regulatory-free zones and global innovation zones, it actively supports the discovery of technology-based companies and their global market expansion.

The companies supported b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chnology Holdings Co., Ltd. have also shown tangible results. Notably, Kustogen Co., Ltd. a company leading innovation in infertility treatment with its ‘Lab-on-a-Chip’ technology, which mimics female reproductive organs, is gaining attention in the global medical market.

Additionally, KNU has established the ‘KNU Collaboration Platform’ to identify the real-time needs of startups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By supporting the necessary resources according to the growth stage of the company, from early-stage startups to growth-stage companies (Post-BI), the university have contributed in creating a sustainable startup ecosystem.

President Jae Yeon Jeong stated, “KNU will further solidify the regional startup ecosystem and create a foundation for startups to grow as TIPS operator. As a national hub university, KNU will

grow with the region and build a competitive startup ecosystem in the global market.”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 첨단기술융합대학으로 미래 산업 이끌 인재 양성

경북대학교는 2025년 첨단 분야 정원 배정 결과에서 113명 순증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대학 중 가장 큰 규모다. 2024년 첨단 분야 정원 배정에서도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294명 순증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는 첨단융합 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 융합학부를 확대, 개편해 첨단 기술융합대학을 설립했다. 첨단기술융합대학은 우주공학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혁신신약학과로 구성되며, 2025학년도에는 로봇공학과와 의생명융합공학과도 개설된다.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미래 모빌리티 교육의 중심

스마트모빌리티공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과 전통적 공학 기술인 전기, 전자, 기계공학을 융합해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 등에 적용하는 첨단 분야다. 올해 10월에는 FIX 2024에서 4족보행 로봇, 수중 탐사용 ROV, 자율주행체 등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미국 UC버클리대와 일본 홋카이도대에 학생 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 하버드대와 스티븐스공과대에도 교류를 추진 중이다.



우주공학부, 다학제 융합으로 우주 산업의 미래를 열다

우주공학은 우주기지, 우주-항공, 로봇, AI, 도심항공교통, 방위산업 등 다학제 전문성을 융합하는 학문이다. 극한 우주환경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인동체 구현을 위한 교육과 연구 인프라도 마련되어 있다.

혁신신약학과, 미래 신약 개발의 핵심 인재 양성에 앞장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대 혁신신약학과는 신약 연구 및 개발을 선도할 미래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석사 통합형 및 학·석·박사 연계과정을 도입해 전문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생명융합공학과, 첨단 바이오 연구로 미래 의료 선도

의생명융합공학과는 공학, 생명과학, 의학, 약학 등을 융합한 첨단 바이오 연구 중심 학과다. 융합 연구를 통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필요한 학문을 이해하고, 새로운 의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융합 인재 및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로봇과 AI시대, 로봇공학과가 이끄는 미래 혁신

로봇공학과는 첨단분야 국내외 로봇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된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휴머노이드, 매니퓰레이터, 모바일로봇 등의 첨단 연구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ultivates Human Resources to Lead Future Industries with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secured a net increase of 113 students in its quota allocation for high-tech fields in 2025, representing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domestic universities. In the 2024 quota allocation for high-tech fields, KNU similarly secured the largest net increase (294) of students among universities nationwide. This year, the existing Convergence Department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to strengthen advanced convergence educ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sists of the Department of Space Engineering, Department of Smart Mobility Engineering, and the Department of Innovative Pharmaceutical Sciences. In 2025, the Department of Robotics Engineering and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will also be opened.

The Department of Smart Mobility Engineering, the Center of Future Mobility Education

Smart mobility engineering combines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I, big data and IoT, with traditional engineering technologies such as electrical, electronic

and mechanical engineering to be applied to intelligent robots and future automobiles. In October of this year, the Department introduced a number of cutting-edge technologies at FIX (Future Innovation tech eXpo) 2024, such as quad-legged robots, ROVs for underwater exploration, and autonomous vehicles. Moreover, there are plans to send KNU students to UC Berkeley in the U.S. and Hokkaido University in Japan. The Department is also seeking collaboration with both Harvard University and Stevens College of Engineering in the U.S.

The Department of Space Engineering Opens the Door to the Future of the Space Industry with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The field of space engineering combines multiple disciplines, including expertise in space bases, space and aviation, robotics, AI, urban air transportation, and defense industries. The Department also provides the education and research infrastructure necessary to design and create unmanned vehicles that perform special missions in extreme space environments.

The Department of Innovative Pharmaceutical Sciences Leads the Way in Cultivating Key Talent for Future New Drug Development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considered a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at the national level,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major field that creates high added valu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Innovative Pharmaceutical Sciences cultivates future multidisciplinary scholars to lea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drugs, with a focus on producing the professional manpower need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Department plans to intensively cultivate professional tal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ombined bachelors-master's program and bachelors-master's-doctoral linked program.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Leads Future Medical Care with Advanced Bio Research

The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is a high-tech bio-research-oriented department that combines engineering, life sciences,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The educational goal is to cultivate multidisciplinary talent and next-generation leaders who

can develop new medical biotechnologies and understand the disciplines necessary for the diagn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s through convergence research.

Future Innovation Led by the Department of Robotics Engineering in the Era of AI and Robots

The Department of Robotics Engineering is equipped with specialized education and research environments to meet the needs of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high-tech robot industries. In particular, it operates a laboratory equipped with advanced research equipment, such as humanoids, manipulators, and mobile robots.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 글로벌대학사업의 혁신성과 창출 워크숍 개최

경상국립대학교(GNU) 글로벌대학사업단은 11월 7-8일 거제 한화벨버디어에서 총장과 주요 사업 관련 팀장급 이상의 실무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대학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대학과 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지역 사회와 경남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과 산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글로벌대학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에 따른 에로사항 등을 공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대학사업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추진과제별 수행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상국립대 권진희 총장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상국립대가 나아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글로벌대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osts Workshop on Innovation Outcomes for the Glocal University Projec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 (GNU) Glocal University Business



Division successfully held a workshop on generating innovative outcomes on November 7-8 at the Hanwha Resort Geoje Belvedere in Geoje. The workshop was attended by over 140 leaders and university presidents involved in major projects. This event served as a significant platform to pioneer new horizons in regional university initiatives and promote the mutual development between the university and society, befitting GNU's role as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representing Gyeongnam.

Participants engaged in enthusiastic discussions to explore innovative education models an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measures that can contribute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Gyeongsangnam-do Province's strategic industries. In particular, this workshop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aise awareness of the Glocal University Project, foster consensus, and share challenges encountered during its implementation, thereby laying the groundwork for smooth project execution and generating innovative outcomes.

The Global University Business Division evaluated that the recent workshop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 project's key focus areas and facilitated the exchange of feedback on ongoing subprojects, thereby uncovering various innovative ideas.

GNU President Kweon Jin-hwe emphasized, "By sharing the status and information of the projects being promoted by each depart-

ment, we aimed to build a consensus. Through this workshop, let us share GNU's future vision and emphasize our commitment to becoming a university that grows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Glocal University Project, fulfilling our role as 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 「ESG경영센터」국립대 최초 설립·운영 규정 제정, 위원회·협의체 설치...대학 경영 새 모델 제시

부산대학교는 2024년 7월 국립대 최초로 ESG경영을 위한 전담기구인 「ESG경영센터」를 기획처 내에 신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ESG경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영어의 합성어로, ESG경영이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 성과에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성과를 포함해 기관(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ESG경영센터」에서는 그간 '부산대학교 ESG경영 규정'을 제정하고, '부산대학교 ESG경영위원회(위원장 교육부총장)'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다양성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내 대학본부, 단과대학, 부속기관 등 각 기관의 다양한 구



성원 78명이 참여하는 '부산대학교 ESG협의체'를 구성해 학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2월 16일 워크숍을 개최해 ESG경영 비전 공유, 특강, 실천강령 제정 논의 등을 진행했다.

「ESG경영센터」는 부산대 멀티캠퍼스 간 격차·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양·양산캠퍼스 학업·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했으며, 사단법인DAPCOC(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와 연계한 학생 대상 마약예방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ESG경영을 위한 과제 발굴과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대는 이후에도 「ESG경영센터」를 중심으로 구성원 대상 ESG교육,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확대 및 이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대학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Become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to Establish and Operate an ESG Management Center Sets Regulations, Forms Committees and Consultative Bodies, Presenting a New Model for University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the ESG Management Center within its Planning Department in July 2024, marking the first dedicated organization for ESG management among national universities.

The university aims to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grounded in the values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taking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ESG is an acronym for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nd ESG management refers to activities that create institutional or corporate value by incorporating non-financial factors-such as environmental, social, and ethical performance-into an organization's economic activities.

The ESG Management Center has developed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ESG Manag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ed several committees, including th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Diversity Committee, and Ethics Management Committee. These initiatives l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romoting ESG management. Additionally,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ESG Management Committee (chaired by the Vice President of Education) has been formed to oversee the university's ESG activities. The university has also set up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ESG Council, comprising 78 members from various sectors within the university, including the main campus, college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to gather and share diverse perspectives.

In connection with these efforts, a workshop will be held on December 16, 2024, to share the university's ESG management vision, hold special lectures, and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ction guidelines.

The ESG Management Center has already implemented the Basic

Plan for Improving Academic and Living Conditions at Miryang and Yangsan Campuses to address disparities and discrimination between the university's multiple campuses. It is also focusing on identifying and executing ESG management tasks, such as conducting drug prevention seminars in collaboration with the non-profit organization DAPCOC (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

Pusan National University is preparing various policies, including ESG education for its members, expanding its network with local organizations, and engaging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rough these initiatives, the university aims to establish a new model for university management.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다양한 학문과 인공지능이 만나 새로운 지식으로 탄생
모두를 위한 AI**

AI 연구원(AIIS: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은 서울대학교의 AI 연구를 지원한다. 서울대의 여러 단위에서 이루어져 온 AI 연구들을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본부 주관 연구소로 설립되었다.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Core AI 연구,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접목하는 X+AI 연구, 산업계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산학협력 등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여러 연구 중 체화 인공지능(Embodied AI)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AI의 근본적인 한계 극복을 연구한다. 신체 행동으로 인간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AI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데, 학습과 추론, 시각과 지각, 언어와 인지, 로보틱스와 행동, 사회적 영향이라는 5개 핵심 분과를 설

정하여 융합 연구를 한다. 그 밖에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사업, 초거대규모 AI 연구, 영아의 뇌인지 발달을 모방한 AI 개발 등을 연구 중이다.

인공지능 ELSI 센터는 AI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들을 다루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AI-FOOD 센터는 푸드테크에 AI 기술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건강·돌봄 AI 센터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센터는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AI 기술을 연구하며, 차세대 자율주행 기반 설립에 힘쓰고 있다.

또한, AI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대학원생, 산업계, 학부생들, AI 관련 직군 종사자에게 AI의 기초 이론과 최신 동향을 교육하고 서로서로 맺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mergence of New Knowledge at the Interface Between Various Disciplin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r Al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IIS) supports AI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IS was founded in 2019 as a headquarters-led research institute to connect AI research across various departm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o comprehensively manage and support these research efforts. Under the framework of "AI for All," the AIIS is spearheading various initiatives, including Core AI research, X+AI research that applies and integrates AI technology across diverse fields, and collaboration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to apply AI technology in industrial contexts.

The Embodied AI development project aims to address the existing fundamental limitations of AI. This project seeks to develop AI capable of communicating and interacting with humans through



캐나다 IVADO 공동 워크숍 개최

physical activity, engaging in convergence research across five key areas: learning and reasoning, vision and perception, language and cognition, robotics and behavior, and social impact. Furthermore, the AIIS is involved in other research projects, such as next-generation AI source technology development, hyper-scale AI, and AI development that imitates the brain cognitive development of infants. The AI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Center addresses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of AI in pursuit of applicable solutions. The AI FOOD Center aims to integrate AI technology into food technology, whereas the Health and Care AI Center is developing an AI-based digital healthcare system. The Autonomous Driving Center, which is dedicated to developing AI technologies to optimize autonomous driving, is focused on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next-generation autonomous driving.

The AIIS offers courses on foundational theories and the latest trends in AI,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graduate students, industry workers, undergraduate students, and AI-related professionals while also fostering networks for those interested in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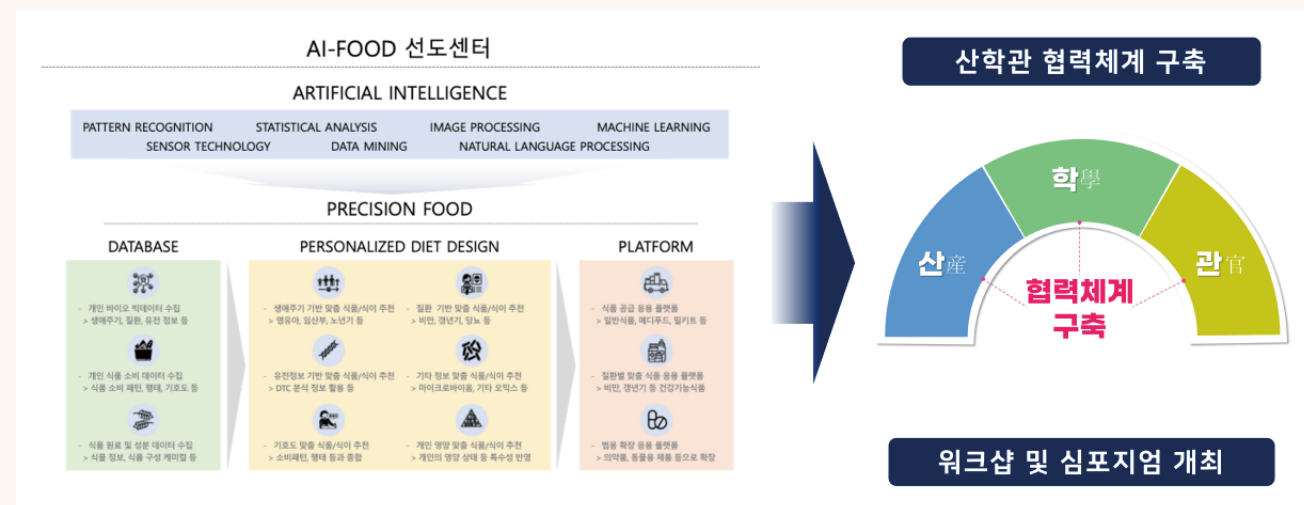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초광역 연합 의료 AI 연구센터 개소

전남대학교가 '초광역 연합 의료 AI 연구센터'를 열고, 최첨단 의료 AI 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는 8년간 75억 원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대학 ICT연구센터사업(ITRC)'에 올해 7월 전남대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인재 양성과 초광역 연합 의료 AI 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센터는 특히 심뇌혈관질환의 AI 기술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질병 예방, 치료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링, 맞춤형 치료 등 혁신적인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면서,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의료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석·박사급 ICT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양형정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면서,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unch of the Hyper-Wide Federated Medical AI Research Center at CNU

CNU has launched the Hyper-Wide Federated Medical AI Research Center to advance cutting-edge medical AI technologies.

This initiative follows CNU's selection f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s 2024 University ICT Research Center Project (ITRC), which will receive 7.5 billion KRW over the next eight years. The project involves collaboration between CNU, CNU Hospita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o foster talent and develop joint medical AI technologies for respective regions.

The center aims to develop AI technologies for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focusing on effective disease prevention, treatment, and medical services. It is committed to finding innovative solutions in data analysis, predictive modeling, and personalized treatment, enhancing healthcare professionals' efficiency, improving healthcare system quality, and nurturing ICT convergence experts at the master's and doctoral levels to lead the medical industry.

Director Yang Hyung-jeong stated, "Experts from various fields will combine their specialties and resources to create synergy, which is expected to bring a new wave of innovation in the medical field."

전남대 링크사업단

구글 AI 교육에 해외 탐방까지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전남대학교 LINC3.0사업단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인공지능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함께 구글 Cloud 교육을 수료한 전남대 학생들에게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했다.

10명의 학생들은 9월 23-27일 싱가포르의 스타트업과 다국적 IT기업을 찾아, 글로벌 기업 생태계와 첨단 기술 트렌드를 살피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Google APAC에 재직 중인 한국인 선배와 만나, 글로벌 기업의 업무환경과 구직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한편, 이번 탐방은 광주시-구글-광주권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4 광주광역시-구글-광주권 대학 Google Cloud 기반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가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마련됐다.

CNU LINC 3.0 Initiative Strengthens Students' Global Competencies with Google AI Education and Overseas Exploration

LINC 3.0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at CNU,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Program of Excellence in Software and the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provided an overseas exploration opportunity for CNU students who completed Google Cloud training.

Ten selected students visited Singaporean startups and multinational IT companies from September 23 to 27 to observe the global corporate ecosystem and advanced technological trends.

They also met with Korean alumni working at Google APAC, gaining insights into the working environment at global companies and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job opportunities.

This exploration was organized as part of the 2024 Gwangju Metropolitan City-Google-Gwangju Regional Universities Google Cloud-based AI Talent Development Program, a collaborative effort by Gwangju City, Google, and five universities in the Gwangju region aimed at helping students develop global capabilities.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유학생 유치의 거점, 해외 주요 대학에 'JBNU 국제센터' 설립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의 대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신입생 충원이 속제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전북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이들을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지역소멸을 해소할 방안이기도 하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전북대는 해외 교류대학에 'JBNU 국제센터'를 설치해 유학생 유치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결실이 맺어졌다. 지난 11월과 12월 태국 랑싯대학교와 모로코 이븐토파일대학교에 잇달아 제1호와 2호 국제센터를 설립했다. 랑싯 JBNU국제센터에서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유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학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모로코 이븐토파일대학 JBNU 국제센터는 전북대의 아프리카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모로코 및 인근 국가에서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를 시작으로 세계 74개국 500여 대학에 이르는 자매결연 대학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세계 주요 대학에 국제센터를 확장 설치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JBNU 국제센터 설치에는 세계 각국에 전북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 유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Establishing 'JBNU International Centers' at Major Overseas Universities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As the number of school-age students continues to decline, local universities face increasing challenges in recruiting new students. To address this issu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BNU) has made it a key initiative to attract 5,000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The aim is not only to bring these students to Korea but also to encourage their settlement in the region, thereby helping to mitigate the issue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s part of this initiative, JBNU is working to establish "JBNU International Centers" at partner universities overseas, positioning them

as key hubs for recruit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se efforts have recently borne fruit, with the first and second centers successfully launched at Rangsit University in Thailand in November and Ibn Tofail University in Morocco in December.

At the Rangsit JBNU International Center, prospective students interested in studying in Korea can access comprehensive support, inclu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information on studying abroad. Meanwhile, the Ibn Tofail University JBNU International Center serves as a regional hub for Africa, providing essential resources and support for students from Morocco and neighboring countries who aspire to study in Korea.

Building on this initial success, JBNU plans to engage in close discussions with its 500 partner universities in 74 countries worldwide to exp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enters at major universities. This network will strengthen JBNU's efforts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The establishment of JBNU International Centers is regarded as a significant first step in broadening JBNU's global influence and presenting a new model for studying in Korea.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24년 결산 “지역 교육 발전 위해 협력체계 강화”

Evaluation Meeting of 2024 Korea NU 10 Presidents Council
- Strengthen Cooperation for the Regional Education Development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올해 총 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교육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2025년도 활동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김일한 제주대학교 총장)는 지난 2월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5월 2차, 8월 3차, 10월 4차 12월 5차 정기회의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각 정기회의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에서 열린 1차 정기회의에서는 공공의료·필수의료 인재 육성 관련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지방 거점국립병원 인턴·전공의 정원 상향, 지역수가 제도 도입, 공공의료·필수의료 교육과정 강화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충북대 주관으로 진행된 2차 정기회의에

서는 신입교원 연구실 안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연구실이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돼 연구 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립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대가 주관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일원에서 열린 3차 정기회의에서는 거점국립대학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보와 보안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끝으로 제주지역에서 열린 4차 정기회의에서는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김일한 회장은 “올 한해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

유하는 등 국가거점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2025년도도 지역 교육에 당면한 현안과 과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거점대학으로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he Korea NU 10 (the 10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Presidents Council held its regular meetings four times in 2024, during which various discussions were held to prepare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ducation and begin planning activities for 2025.

The Korea NU 10 Council (Chair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Kim Eel-hwan) held a total of four regular meetings, starting with the first regular meeting at the Grand Hyatt Jeju in February, followed by the



second meeting in May, the third meeting in August, and the fourth meeting in October.

The main achievements of each regular meeting are as follows:

At the first regular meeting held in Jeju, the council made progress in discussions related to the “Joint Response Plan for Fostering Public & Essential Medical Personnel.” In this meeting, the Council achieved result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interns and residents in locally based national hospitals, introducing a regional fee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public and essential medical curriculum.

At the second regular meeting organized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Council discussed measures for enhancing safety for newly appointed faculty in research labs. Korea NU 10 decided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by forming a consensus that the government’s budget should support the improvement of laboratory environments and the acquisition of safety equipment through a project aimed at creating safe laboratory environment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sted the third regular meeting, which was held in Muju-gun, Jeonbuk Province. Various discussions were held at this meeting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In particular, the debate focused on establishing university information security to actively respond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The final regular meeting, held in Jeju, continued in-depth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Information System Disaster Recovery Center.

Council President Kim Eel-hwan (JNU President) said, “The Korea NU 10 Presidents Council shared opinions on current educational issues in the region in 2024 and held various discussion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hub universities.” He added, “The council will continue its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hub universities in 2025 to develop solutions to current issues and tasks facing regional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10



회원대학 소식

News of Member Universities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 ‘제주올레길과 자아성찰’ 2학기 마지막 수업 운영 ‘Save my friend!’ 수강생들의 멘토 역할 기대

The Last ‘Jeju Ollegil & Self-reflection’ Class in 2024 Semester
“Save My Friend!”, from Mentee to Mentor

제주대학교의 학부 재학생들이 학내외 멘토들과 함께 올레길을 걸으며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신설·운영(교육혁신처 미래교육과 주관)하고 있는 ‘제주올레길과 자아성찰’ 교과목의 마지막 수업이 지난 11월 8일 오전 대평포구(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서 ‘올레 9코스’ 스탬프를 찍으며 시작되었다.

재학생 27명과 제주연구원, 제주관광공사, (주)씨엘테크, 모비텍 임원진으로 구성된 JNU멘토단 35명 등 75명이 참여했으며, 오전에는 인근 대정여자고등학교(교장 서자양)의 교원 및 학생 37명도 올레길 위의 멘토링 수업을 함께 했다.

참여 학생은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올레길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대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더 성장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현직 멘토로부터 경험담과 조언을 들었을 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나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았다”면서 “오르막길을 힘들게 오르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은 오롯이 나를 만나는 값진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수업 후기를 전했다.

멘토로 참여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연구원 박사들도 대학생 시절 고민과 방향의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 조언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일환 총장은 “제주올레길과 자아성찰 교과목의 최종 목적이 ‘Save my friend’인데 수업을 받은



학생이 나중에 멘토가 되어 음지에서 혼자 아파하는 친구를 양지로 이끌어준다면 이보다 더 즐겁고 보람된 일은 없다. 제주의 자연을 벗 삼아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길 바란다”며 수강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The final session of the JNU “Jeju Olle-gil & Self-Reflection” course took place on the morning of November 8, starting with the stamp of ‘Olle 9 Course’ at Daepyeongpogu (Changcheon-ri, Andeok-myeon, Seogwi-po-si, Jeju). This newly established course, organized by the Future Education Divis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nnovation, aimed to help JNU undergraduate students design their careers and academic paths

while walking the Olle trails with mentor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university. A total of 75 people participated in the event, including 27 JNU students and 35 members of the JNU Mentor Group. The mentors included executives from organizations such as the Jeju Research Institute, Jeju Tourism Organization, CL Tech, and Mobitech. Additionally, 37 teachers and students from Daejeong Girls’ High School (led by Principal Seo Ja-yang) joined the Olle Road mentoring classes that morning. One student shared their thoughts on the experience, saying, “It wasn’t just about walking on the trail—I felt a little more mature as I shared my college life with friends

I met in the Olle Road class. Climbing the uphill paths allowed me to meet and reflect on myself, which was an incredibly valuable experience.”

Yang Deok-soon, head of the Jeju Research Institute and one of the mentors, remarked, “As researchers, we also experienced

struggles and uncertainty during our college years. This understanding allowed us to empathize with and advise students in a meaningful way.”

JNU President Kim Eel-hwan shared his aspirations for the program, saying, “The ultimate goal of the Jeju Olle-gil & Self-Re-

flection course is to ‘Save my friend.’ There is nothing more rewarding than seeing a student who took this class eventually become a mentor and support a friend in need. I hope you can embrace your youth fully, taking Jeju’s nature as your companion.”

제주대 첫 해외 동문회 결성 ‘눈길’ 최근 일본 도쿄 우에노서 창립총회 열고 ‘재일본제주대학교동문회’ 출범

JNU’s First Overseas Alumni Association
‘JNU Alumni Inaugural General Meeting in Japan’, the first overseas alumni association consisting of alumni from JNU, was held in Ueno in Tokyo, Japan.

제주대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첫 해외 동문회가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대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첫 해외 동문회인 ‘재일본제주대학교동문회’는 지난 11월 3일 저녁 일본 도쿄 우에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재일본 동문회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월부터 동문회 결성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동문회 창립총회에는 초대 송영민 회장(해양학과 92년졸업)과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고, 모교 김일환 총장과 총동창회 김남식 부회장이 참석해 동문회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했으며, 모교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영민 회장은 “첫 해외 동문회를 출범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졸업 후에 해외로 진출하는 동문이 더욱 늘어나 대학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교와 동문회가 발전해 나가는 발판이 되었으며 한다”고 피력했다.

김일환 총장은 “동문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동문 여러분이 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모교와 고향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동문들의 도움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 first overseas alumni associati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JNU) in Japan, known as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Japan,” was officially launched with an inaugural general meeting held on November 3 in Ueno, Tokyo, Japan. Recognizing the growing number of JNU alumni in Tokyo and Osaka, the JNU Alumni Association had been preparing for this formation since January 2024.

The inaugural event was attended by Song Young-min, the first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a 1992 graduate of JNU’s Department of Oceanography), along with 10 other JNU alumni. In addition, Kim Eel-hwan, President of JNU, and Kim Nam-sik, Vice President of the JNU Alumni Association, joined the event to congratulate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hapter. They also exchanged ideas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JNU.

Song Young-min, President of the JNU Alumni Association in Japan, remarked, “We are very pleased to launch our first over-

seas alumni association in Japan.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JNU alumni pursuing opportunities abroad after graduation, this association is expected to grow further. I hope the alumni association and our alma mater will thrive by building strong networks among JNU graduates.”

JNU President Kim Eel-hwan said, “On behalf of all members of JNU, I sincerely congratulate the founding of the JNU Alumni Association in Japan. There is a saying that academic achievements cannot be erased. I encourage our alumni to work together to enhance the prestige of JNU.” He added, “JNU greatly needs the support of our overseas alumni to advance our university, our hometown of Jeju, and Korea as a whole.”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 대학도서관 최초 ‘도서관 협력 업무 유공기관’ 포상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First University Library to Receive the ‘Outstanding Library Cooperation Award’

지역사회 지식의 요람이자 지역과 대학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도서관이 대학도서관 중에서 최초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 협력 업무 유공기관’ 포상을 받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79주년을 기념해 10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유공자 시상 및 협력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충남대 도서관이 도서관 협력 업무 유공자 포상 단체 부문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표창을 수상했다.

도서관 협력 업무 유공자 포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속 가능한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한 도서관 발전과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에 개인 및 단체 5개, 국립중앙도서관장 표창에 개인 및 단체 8개 등 총 13개 개인 및 단체가 선정됐다.

2007년 도서관 협력 업무 유공자 포상이 시행된 이래 대학도서관이 포상 단체로 선정된 것은 충남대가 처음이다.

충남대 도서관은 상생 및 발전을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차원의 협력사업 참여로 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했으며, 지역-대학 간 상생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hub of community knowledge and a cultural space connecting regions and universities, has been

honored with the ‘Outstanding Library Cooperation Awar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the first university library to receive this recognition.

On October 14, to commemorate its 79th annivers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osted an awards ceremony and cooperation seminar at its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During the ev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eceive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irector’s Commendation in the group category of Awards for Outstanding Library Cooperation.

This award, presen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recognize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and the enhancement of user services

through various forms of collaboration. This year, a total of 13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ere selected, including five fo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endation and eight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irector’s Commend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s the first university library to be selected as an organization since the award’s inception in 2007.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as highly praised for its efforts in building a library network, participating in national-level cooperation projects to enhance library services, and promoting coexistence between regions and universities to bridge the information gap.



충남대, ‘2024 CNU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eld the 2024 CNU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estival



충남대학교가 자-산-학-연 협력에 대한 우수성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24 CNU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학협력단, LINC 3.0사업단, 창업지원단, 인재개발원, 공학교육혁신센터,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및 4단계 BK21 혁신의과학교육연구단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 주관했다.

충남대는 대학 중심의 자-산-학-연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온 우수성과의 사례를 홍보·공유하고, 혁신 주체 간 공유와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기획했으며, 행사 기간을 ‘CNU 산학협력 주간’으로 지정했다.

주요 행사로는△우수 창업동아리, 캡스톤디자인, 실험실 우수 아이템 사업화 성과 홍보 △우수 연구자 및 연구 성과 사례 발표 △충남대 가족회사 소개 △미래 모빌리티 메이커 아이디어 기획전 작품 전시 △자-산-학 공동포럼 개최 △공모전 시상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우리가 PICK한 축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유튜브 ‘박위(채널명: 위라클)’와 ‘이정현(채널명: 정브르)’ 초청 강연이 진행됐으며, 교

직원 및 학생들이 직접 판매하는 플라마켓이 운영되는 등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eld the 2024 CNU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estival from November 19 to 21 to share excellent achievements and examples of intellectual, industrial, academic, and research cooperation. The festival was co-hosted by several groups, including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LINC 3.0 Project Group, Start-Up Support Group,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on Center, Daejeon-Sejong-Chung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Development Project Group, and the 4-Step BK21 Innovative Medical Education Research Group.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rganized the festival to showcas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its university-centered intellectual, academic, and research cooperation system and to

provide a platform for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innovators. The festival period has been designated as the ‘CNU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Week.’

The following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programs were held as major events:

- △ Excellent Start-Up Clubs, Capstone Designs, and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ve Lab Products
- △ Presentations of Outstanding Researchers and Research Achievements
- △ Introduction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amily Companies
- △ Future Mobility Makers Idea Planning Exhibition
- △ Collaborative Forum for Knowledge, Industry, and Academia
- △ Awards for the Contest

This festival, held under the theme ‘The Festival We Picked,’ invited YouTubers Wi Park (channel: Wirak) and Jung-hyun Lee (channel: Jeongbr) to give lectures. In addition, faculty and students organized a flea market, creating an atmosphere where university members and local residents could participate together.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 겨울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온정 실천

CBNU, Sharing Warmth with Neighbors in Need during the Winter Season

충북대학교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나눴다. 지난 11월 15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일원에서 '제10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고창섭 총장, 홍장의 학생처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교직원들이 2개 팀으로 나눠 봉사단체인 (사)충북연탄은행의 안내를 받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빈곤층 등 취약 계층 가구를 방문해 총 2,400장의 연탄을 가구당 연탄 200장씩 12개 가구에 전달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는 충북대 여직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취약계층 가구가 훈훈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지역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창섭 총장은 "지역민의 마음이 모여 열린 충북대가 이제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속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는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해왔으며, 지역사랑 실천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어버이날 충북 청주 중앙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는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Koh Chang-seop) shared warmth with neighbors in need in preparation for the coming winter. On November 15 (Friday), the university held the

"10th Sharing of Love Briquettes" volunteer activity in Geumcheon-dong, Sangsang-gu, Cheongju-si.

On this day, more than 50 faculty and staff members, including President Koh Chang-seop and Dean of Student Affairs Jangeui Hong, were divided into two teams and visited vulnerable households such as the elderly, disabled, child breadwinners, and the poor, and delivered a total of 2,400 briquettes to 12 households, 200 briquettes per household, under the guidance of Chungbuk Briquette Bank, a volunteer organization.

The 'Sharing Briquettes of Lov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omen's Association to help vulnerable

households enjoy a warm winter and to convey love and concern for the local community.

President Koh Chang-seop said, "CBNU, which was opened with the hearts of local people, is now striving to coexist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As a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we will continue to serve the local community to grow together and practice sharing."

Meanwhile, CBNU has been delivering briquettes to neighbors in need since 2013 to practice love and be together with neighbors. Also, since 2009, it has been holding an annual lunch event for local seniors at Cheongju Central Park in Chungcheongbuk-do every Parents' Day.



충북대, 글로벌 미래인재 장학금 신설 ...입학부터 석·박사까지 대폭 지원

CBNU, Establishing Glocal
Future Talent Scholarship
... Substantial Support
from Admission to Graduate
Programs

충북대학교가 우수 인재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미래인재 장학금'을 신설했다.

'글로벌 미래인재 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부터 학사 및 석·박사 과정 동안 총 1억 원 이상의 장학금과 수확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선발기준은 정시 및 수시 최종 등록자 중 수능 전 영역 성적 합계 평균 2.5등급 이하 취득자 전원이며,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한다. '글로벌 미래인재 장학금'에 선정되면 학부생의 경우 △재학 중 등록금 전액 지원 △수확보조금 총 2,400만 원(연 600만 원) 지원 △학생생활관 우선 선발 △해외교환학생 우선 선발 △글로벌 연수 가산점 부여 및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원생의 경우 석·박사 과정에 진학한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수확보조금 석사 총 1,800만 원(연 900만 원), 박사 총 2,800만원(연 1,400만 원) 지원 △장단기(학기단위) 해외 연수 지원 (1,000만 원 이내) 등을 대폭 지원한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충북대 교원 선발시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우수 인재 정주 및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창섭 총장은 "글로벌 미래인재 장학금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으로,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크게 지원함으로써 성적 우수 학생의 우리대학 입학에 유도해,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첨단 사회의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Koh Chang-seop) has established the "Glocal Future Talent Scholarship" to foster global and local future talent through expanded recruitment of excellent talent.

Students selected for the Glocal Future Talent Scholarship will receive a total of over 100 million KRW in scholarships and research subsidies from admission to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

The selection criteria are all students who have earned an average grade of 2.5 or below in all sections of the CSAT among the final enrollees, both regular and special admissions, and selection will begin with freshmen entering in 2025. If selected for the "Glocal Future Talent Scholarship", undergraduate students will receive △ full tuition support while enrolled △ research subsidies totaling 24 million KRW (6 million KRW per year) △ priority selection for student dormitories △ priority selection for overseas

exchange students △ additional points for global training and scholarship.

Graduate students who advance to a master's or doctoral program will receive: △ full tuition support △ research subsidies totaling 18 million KRW (9 million KRW per year) for master's degrees and 28 million KRW (14 million KRW per year) for doctoral degrees △ short-term and long-term (semester-based) overseas training support (within 10 million KRW).

In addition, if they meet certain criteria after obtaining a doctoral degree, they will be given priority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CBNU faculty members for the retainment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the cultivation of postgraduate studies.

President Koh Chang-seop said, "The Glocal Future Talent Scholarship is a policy promoted under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we will greatly support freshmen students with excellent grades to induce them to enter CBNU, and through continuous support from bachelor's to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we will generously support them to grow into glocal future talents in a rapidly changing high-tech society."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춘천교육대, 「강원 1도 1국립대학」 추진 협약 체결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ign,
「Gangwon 1 Province 1 National University」 Promotion Agreement」

강원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는 11월 19일 「강원 1도 1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재연 강원대 총장과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의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강원 1도 1국립대학 추진에 협력 △강원 1도 1국립대학 출범을 위한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협약 체결 이후 양 대학은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 혁신 및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끄는 교육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앞서,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2023년 11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되어 「강원 1도 1국립대학」 모델을 기반으로, 「강원대학교」라는 통합 교명 아래 2026년 출범할 예정이다.

정재연 총장은 “이번 협약은 강원 1도 1국립대학의 가능성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춘천교육대학교의 특성화된 교원 양성 역량과 강원대학교의 다학제적 연구·교육 경쟁력이 결합하여 지역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 November 19th(Tuesda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igned a 「Gangwon 1 Province 1 National University」 Promotion Agreement.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approximately 20 key officials from both universities, includ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President Jae Yeon Jeong and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 President JuHan Lee.

Through this agreement, the two universities △ will cooperate in the promotion of the 'Gangwon 1 Province 1 National University' initiative △ actively participate in discussions regarding the integ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initiative △ agree on the principles of integration after

gathering sufficient opinions from their members.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he two universities have agreed to engage in active integration discussions through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regional stakeholders. Both parties aim to establish an innovative education system for early childhoo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position themselves as the educational core driving the future of Gangwon State.

Earlier in November of 2023, KNU and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Based on the 'Gangwon 1 Province 1 National University' model, the two universities plan to launch under the unified nam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y 2026.

President Jae Yeon Jeong stated, “This agreement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expanding the possibilities of the 'Gangwon 1 Province 1 National University' initiative. By combining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 specialized teacher training capabilities with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educational competitiveness, we will create a university that the local community and all members can be proud of.”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및 반도체공동연구소」 출범
Launch of 「Semiconductor Specialization University and a Semiconductor Joint Research Institute」



강원대학교는 11월 15일 춘천캠퍼스에서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개소식 및 반도체공동연구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재연 총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반도체 검사장비 미래 전망 △리보솜 관련 생체 스트레스 및 진단기기 개발 등 최신 반도체 기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강원대는 이번 개소식과 출범식을 통해 약 78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첨단 실습 인프라와 연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8년까지 반도체 연구소 건립 및 장비 구축에 총 51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며, 서울대와 연계한 반도체 설계·공정 융합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강원대는 2025학년도에 「반도체융합학과」 복수전공 과정을 신설해 매년 50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며, 칩렛 반도체 연구와 인턴십을 통해 인하대와 협력한 교육모델도 운영할 계획이다.

On November 15th (Friday), KNU hel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emiconductor Specialization University and a Semiconductor Joint Research Institute」 at its Chuncheon campus. The event was attended

by key figures, including President Jae Yeon Jeong, Gangwon State Governor Kim Jin Tae, Chuncheon City Mayor Yuk Dong-han, and Director Jongho Lee of Inter-University Semiconductor Research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vent featured presentations on topics such as △the future outlook of semiconductor inspection equipment △the development of biosensors and diagnostic devices related to ribosome-associated biological stress.

KNU plans to establish advanced practical infrastructure and research environments with a budget of approximately 78 billion KRW. Notably, the university will invest a total of 51.16 billion KRW in semiconductor research and equipment construction by 2028, and will conduct semiconductor design and process integration research in collaboration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dditionally, KNU will introduce a dual-major program in 'Semiconductor Convergence' starting in the 2025, aiming to train 50 specialized professionals annually. The university also plans to operate an educational model in collaboration with Inha University, focusing on chiplet semiconductor research and internships.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제20대 총장 허영우 박사 취임

행동하는 경북대의 혁신 강조
세계가 주목하는 초일류 대학으로의 첫걸음 내딛어

Inauguration of the 20th KNU President, Dr. Young-Woo Heo
Emphasis on the Active Innovation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king the First Step to Becoming a Top-Tier University Recognized Worldwide

경북대학교 제20대 총장 허영우 박사가 12월 11일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허영우 신임 총장은 지난 6월 25일 실시된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어 임명을 받은 11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첫 날에는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대표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우리,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구성원들과의 소통으로 동행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허영우 총장은 취임식에서 "경북대의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혁신으로부터 시작한다. 대학이 지역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학생들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리와 긍지와 봉사의 정신을 배우는 곳, 경북대는 그러한 사명을 실현하겠다"라며,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으로 시대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초일류

대학, KNU'를 만들어 가겠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지금, 우리 경북대는 도약의 큰 걸음을 내딛는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을 이루어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겠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일류 세계 100대 대학으로, 'More Action KNU' 더 행동하고, 활기찬 대학으로, 우리는 거침없이, 지혜롭게, 더 큰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세계가 주목하는 초일류 대학, KNU'를 비전으로 내세운 허영우 총장은 3대 핵심과제로 '시대를 이끄는 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 '미래를 주도하는 글로벌 대학'을 두고, 교육환경 개선과 융합 교육 혁신, 균형 있는 학문 발전과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 튼튼한 기초를 위한 포괄적 복지 강화, 효율적 행정과 소통 기반의 신뢰 구축,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캠퍼스 환경 실현, 글로벌 연구·교육 네트워크 확대, 재정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7대 혁신 전략으로 세웠다.

허영우 총장은 경북대 무기재료공학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5년부터 경북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경북대 공과대학장 겸 산업대학원장, 투명한화학반도체 연구회장,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신임 허영우 총장이 취임한 경북대는 본격적으로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라이즈(RISE)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경북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혁신적 전환과 우수한 청년 연구자 양성'을 비전으로 한다. 경북대는 이를 위하여 3대 융합연구원 설치, 해외 R&D 거점센터(GIC-R) 및 해외 교류 거점센터(GIC-E) 설립, 도시 전역 Micro 캠퍼스 운영, 연구중점 학사구조 개선, 대규모 계약학과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정주를 통한 선순환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라이즈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유사 사업과는 차별성을 지닌 지역 신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 인구 지역 정착 유도과 지역의 산업구조 혁신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다.

Dr. Young-Woo Heo, the 20th president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ld an inauguration ceremony at Hyoseok Hall in Global Plaza on Dec. 11. The new president began his term on Nov. 15, following his election win and appointment as the KNU president on June 25. On the first day of his term, he began his journey focused on "companionship" by sending an e-mail with the message,



"Let's start a beautiful journey together," and attaching a photo taken with representatives of the faculty, staff council, and student council in the background.

President Heo said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A new 100 years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egins with genuine innovation. We will realize a mission in which universities become the driving force of regional innovation, and students learn the spirit of truth, pride, and service to advance out into the greater society." He added, "We will cultivate talent who can lead us through sustainable innovation and growth to create a 'top-tier university, a KNU recognized around the world.' In these current times when everyone is talking about a cri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s taking a big step forward. Based on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we will develop regional innovation to increase global competitiveness and connect the region to the world. As one of the world's top 100 universities with worldwide name recognition, 'More Action KNU' will be doing a lot more action, becoming more vibrant, and we will move on to a bigger world stage, both wisely and without hesitation."

President Heo put forward a vision of "KNU, a Top-Tier University Recognized Worldwide," and established seven innovation strategies: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nnovating convergence education, strengthening balanced academic development and global research competitiveness, building trust based on efficient 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 realizing a customized campus environment utilizing its features and resources, expanding global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s, securing financial stability,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President Heo has been a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5, and he holds a bachelor and master's degree from Florida University in the U.S. He has served as the Dean of both the KNU College of Engineering and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airman of the Transparent Oxide Semiconductor Research Society, and professional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under new president Young-Woo Heo, plans to accel-

erate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both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and the RISE Project.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aims to "transform KNU into an innovative research-oriented university and cultivate excellent young research talent." To this e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ill establish three major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s, R&D hub centers (GIC-R), and overseas exchange hub centers (GIC-E). KNU will also operate micro campuses across the city, improve academic programs focused on research, and establish a contract-based program tailored to the industries of Daegu. In addition, KNU plans to take an active leading role in the RISE Project, which aims to build a regional development ecosystem based on a virtuous cycle created through the training of local talent an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startup creation, and long-term settlement in the region. While innovating the region's industrial structures by fostering human resources specialized in new regional industries that are unique and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imilar ones, KNU can contribute to attracting younger professionals to settle in the area long-term.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 '우주농업연구센터' 설립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Establishes the "Space Agriculture Research Center" (SPARC)

경상국립대학교(GNU)가 대학 특성화 분야인 우주항공과 농업생명과학을 융합한 '우주농업연구센터(SPARC, Space Agriculture Research Center)'를 설립했다.

우주농업연구센터의 연구분야는 인공위성 기반 농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술, 첨단 식물공장 기반 우주(극한)환경 작물생산 최적화 기술, 극한환경 적응형·고기능성 작물 육성 및 재배 기술, 우주농식품 원료가공-제품생산-안전성 및 효능검증 기술 개발 등이다. 사업분야는 농업위성 빅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극한환경 적응형·고기능성 작물 및 재배 기술 보급, 우주인 맞춤형 우주농식품 개발, 우주환경 모사형 첨단 식물공장 단지 개발, 우주농업학회 설립 및 운영 등이다.

센터는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9명으로 우주식량지원부, 우주스마트농업부, 우주농식품개발부, 우주농업기반부, 우주농생명과학부로 조직됐다.

경상국립대는 11월 19일 오후 가좌캠퍼스 박물관 대강당에서 우주농업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을 '우주 농업 전망과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권진희 총장은 심포지엄에서 "우리 경상국립대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우주산업과 농생명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우주농업 시대'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농업연구센터 설립으로 관련 연구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as established the "Space Agriculture Research Center" (SPARC), which integrates the university's specialized fields of aerospace and agricultural life sciences.

The research areas of SPARC include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atellite-based

agricultural big data; optimization of crop production in (extreme) space environments using advanced plant factory technology; development and cultivation of high-functional crops adapted to extreme environments;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processing food raw materials, producing space food, and verifying its safety and efficacy. Meanwhile, SPARC's business areas encompass practical applications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including dissemination of smart farming technology for open-field agriculture based on agricultural satellite big data; distribution of cultivation techniques for high-functional crops adapted to extreme environments; development of space agricultural foods customized for astronauts; development of advanced plant factory complexes that simulate space environment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pace Agriculture Society.

The center is composed of 19 professors from the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organized into 5 specialized departments: Space Food Resources, Space Smart Agriculture, Space Agricultural Food Development, Space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Space Agricultural Life Sciences.

On November 19, GNU hosted a commemorative symposium for the establishment of SPARC at the Museum Grand Hall at the Gajwa Campus, which was themed "Prospects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Space Agriculture and Industry."

In his opening remarks, GNU President Kweon Jin-hwe expressed his optimism, "Our Gyeo-

ongsang National University uniquely excels in both the aerospace and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With the infrastructure already in place to lead the 'era of space agriculture,'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Agriculture Research Center will accelerate our research efforts and place us at the forefront of this new frontier in sustainability and food security."

경상국립대-KOICA, '경남글로벌통합포럼(GGIF 2024)' 개최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KOICA to Host "Gyeongnam Global Integration Forum (GGIF 2024)"

경상국립대학교(GNU)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는 11월 20~21일 가좌캠퍼스 국제어학원에서 '경남 지·산·학·관·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2024년 경남글로벌통합포럼(GGIF 2024)'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남 소재 지자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산업체, 대학, 민간협단체, NGO 등에서 200여 명의 개발협력 주체가 참석했다.

포럼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한 경상국립대 김찬우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대학포럼 △ESG녹색기술포럼 △산업에너지기술포럼 △과학기술ICT포럼 △해양생물도시지속가능포럼 △협력국창업CSO개발협력포럼이라는 6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지·산·학·관·민 협력을 통한 경남지역 발전과 글로벌 국제개발협력(ODA)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경상남도과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경상국립대, 창원대, 인제대를 비롯해 경남대, 경남연구원, ESG산업기치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동발전, 아라소프트, 자연환경국민신탁, 동아시아바디공동체 오션, 굿네이버스, 한우크라이나뉴빌딩협회, 국제개발컨설팅협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 (GNU) Gyeongna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hosted the "Gyeongnam Global Integration Forum 2024 (GGIF 2024)" on November 20 and 21 at the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on Gajwa Campus. The forum's theme was "Enhancement of Impacts and Outcomes of Gyeongsang'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University,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forum brought together over 200 development cooperation stakeholders from local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industries, universities, private associations, and NGOs in the region.

The forum commenced with a keynote speech by Professor Kim Chan-Woo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for Climate Chang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llowed by six sessions: the Glocal University Forum, the ESG Green Technology Forum, the Industrial Energy Technology Forum, the Science, Technology, and ICT Forum, the Marine Biology Sustainable City Forum, and the Partner Country Startup CSO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irector of Gyeongna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Kim Kwan-

Young, outlined strategie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of the Gyeongnam region and the expansion of glocal official government assistance (ODA) through collabo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dustries, academia, publ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ere led by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selectees; GNU,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Inje University, and Kyungnam University, as well as Gyeongnam Institute, ESG Institution for Industrial Valu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Gyeongnam Techno Park,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Korea South-East Power, AraSoft, National Nature Trust,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Good Neighbors, Korea Ukraine New Building Association, and Consulting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부산대학교는 대학 설립 초창기의 건축정신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교내 박물관을 대대적으로 보수 및 리모델링해 2024년 10월 28일 재개관했다.

부산대 박물관은 1955년 한국전쟁 직후 건립됐으나, 부산 관재청 창고에 소개돼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요 문화유산 18,833점의 국보 피난처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후 1964년 5월 정식 개관함에 따라 부산대 박물관은 올해 60주년을 맞게 됐다.

이번 재개관과 함께 지난 1년 동안의 내진공사와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70년 전 근대 목조건축의 천장 구조(서까래)를 그대로 드러나게 복원한 박물관의 고풍스러운 모습과 전면 개편된 전시실 및 다양한 내부 시설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새롭게 개편된 전시와 문화공간은 단순한 외관의 변화를 넘어 부산대 박물관의 역사성과 전문 역량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부산대 박물관은 이번 재개관을 기념해 박물관 개관 60주년 기념 특별전 '명품(名品), 수장고를 나서다'와 전시실 전면 개편에 따른 상설전 '문화유산, 기억을 되살리다' 등 전시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5월 28일 우선 공개된 열람·휴식·학습·강연·전시·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가온나래'도

최근 부산대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야외공간에서는 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유산들을 만날 수 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reopened its on-campus museum on October 28, 2024, following extensive renovations and remodeling. The museum, which preserves the founding spirit and history of the university, holds a significant place in the institution's legacy.

Established in 1955, shortly after the Korean War,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Museum initially played a crucial role as a national treasure shelter for 18,833 important cultural heritage item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emporarily stored at the Busan Administration Office warehouse. The museum officially opened in May 1964, and this year marks its 60th anniversary.

The recent reopening reveals a museum that has undergone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cluding the restoration of its antique appearance to expose the original ceiling structure (rafters) of the 70-year-old wooden building.

Earthquake-proof construction and remodeling work have revitalized the structure, while the exhibition hall and internal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renovated. The redesigned space goes beyond mere cosmetic changes, aiming to share the museum's rich history and expertise with the public.

In celebration of the reopening, the museum is hosting special exhibitions, including the Masterpieces, Leaving the Storage exhibition, commemorating its 60th anniversary, and the permanent exhibition Cultural Heritage, Reviving Memories, which marks the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exhibition hall.

The museum's newly renovated cultural space, Gaon Narae which opened to the public on May 28, serves as a multifunctional area for reading, relaxation, study, lecture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It has recently become a prominent attract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outdoor space also features stone cultural heritage items from the museum, offering visitors a chance to connect with the past in a unique and engaging setting.

부산대, 「국가고객만족도(NCSI)」국립대 1위 선정

Pusan National University Ranks 1st Among National Universities in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부산대학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2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교육서비스업 국립대학교 부문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고객만족도(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만족 수준을 측정, 계량화한 지표다.

부산대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만족도가 최고로 높은 국립대로 인정받았다.

부산대는 정부의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돼 5년간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통해 2027년 3월 '통합 부산대학교'로 출범해 유아·초등·중등·특수·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교육양성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 학생들이 전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PNU 펜토미노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

부산대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전국 대학 중 2위로 많은 38개 교육연구단(팀)이 선정돼 연간 270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및 AI 등 첨단 분야에서 대규모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연구 기반을 확충했다.

최근 수년 동안 글로벌 무대에서 부산대의 위상이 현격하게 높아져,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61개 연구중심대학들의 협의체인 '환태평양대학협회(APRU)'에 지난 2021년 서울대, POSTECH, KAIST,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국내 6번째로 가입했으며, THE와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국내 국립대 유일 모두 100위 내에 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세계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가파른 순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was recognized as the top institution in the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sector in the 2024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The NCSI is a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index jointly developed by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and the University of Michigan in the United States. It gauges and quantifies the satisfaction levels of products and servi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the highest score in this survey, earning recognition as the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highest customer satisfac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as a government-designated global university, securing over 150 billion won in funding over five years. In addition, through its integration with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university will officially launch as the 'Integrated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March 2027,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teacher training system that covers early childhood, elementary, secondary, special, and lifelong education. Starting in the 2025 academic year, the university will also introduce the PNU Pentomino Education System, which allows students to design their own majors, fostering convergence talents.

The university also ranked second nationwide in the 4th stage BK21 project, with 38 education and research groups selected. It will receive KRW 27 billion annually in government funding to strengthen graduate school research capabilities and expand research bases in advanced fields such as semiconducto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cent years, Pusan National University's global standing has risen significantly. In 2021, it became the sixth university in Korea to join the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PRU), an association of 61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in 17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follow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CH, KAIST, Yonsei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also achieved remarkable success in global rankings, becoming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to place in the top 100 in both the Times Higher Education (THE) and Quacquarelli Symonds (QS) Asian University rankings. The university continues to experience a steep rise in both world and Asian university evaluations.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스웨덴과 함께하는 SKERIC Week 2024 개최

Held SKERIC Week 2024 with Sweden

지난 2024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스웨덴의 교육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SKERIC Week 2024’ 행사가 개최됐다. SKERIC(Sweden-Korea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Collaboration,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 프로젝트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와 스웨덴의 룬드(Lund) 대학, KTH 왕립 공과대학, 우메오(Umeå) 대학, 읍살라(Uppsala) 대학, 예테보리(Göteborg) 대학이 참여하고 주한 스웨덴대사관이 협력하는 다자간

연구 협력 프로젝트로,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스웨덴의 연구자, 스타트업 및 연구재단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했다.

SKERIC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은 신진 연구자 간 교류 및 공동연구(Work Package 1), 차세대 리더 과학외교 아카데미(Work Package 2), 연구기반 스타트업-스핀오프 포럼(Work Package 3)이며, 전체 참가자들은 2026년까지 온라인 세미나와 연 1회 대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SKERIC Week 2024’는 전체 참가자들의 첫 대면 행사이다.

11월 11일 서울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양국의 연구자와 스타트업 참가자들이 다학제적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Science Talk 세션에서는 스웨덴 린셰핑(Linköping) 대학의 Lars Hultman 교수와 재료공학부 장호원 교수, 유효빈 교수가 나노소재 분야에 대한 양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11월 14일에 열린 호라이즌 유럽 주제별 설명회에서는 KTH 왕립 공과대학을 비롯한 유럽의 관계자들이 EU 펀딩 구조와 연구 제안서 작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스웨덴 양국의 지속적 글로벌 협력과 학술교류의 중요한 단계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한국과 스웨덴 연구자, 스타트업, 대학, 유관 기관의 연구-창업 역량 및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The “Sweden-Korea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Collaboration (SKERIC) Week 2024” event was held from November 11 (Monday) to November 15 (Friday), 2024, to strengthen education and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Sweden. The SKERIC project is a multilateral research cooperation project involv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Korea and Lund University,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Umeå University, Uppsala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Gothenburg in Sweden, with the support from the Embassy of Sweden, Seoul, South Korea. Approximately 180 participants, comprising researchers, startup representatives, and research foundation officials from both South Korea and Sweden, attended this event.

The main programs of the SKERIC project include networking and collaborative research among young researchers (Work Package 1), a science diplomacy academy for next-generation leaders (Work Package 2), and a forum for research-based startups and spin-offs (Work Package 3). All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online seminars and one annual in-person event until 2026. SKERIC Week 2024 is the first offline event for all participants.

The opening ceremony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November 11 provided a platform for researchers and startup participants from both countries to engage in discussions on multidisciplinary topics and network with one another to seek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In the following Science Talk session, Professor Lars Hultman from Linköping University in Sweden and Professors Ho Won Jang and Hyo-bin Yoo from the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resented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in the field of nanomaterials from both nations and facilitated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future trajectory of related technologies.

At the Horizon Europe briefing session (three themes) held on November 14, European officials from prominent institutions, including the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troduced the EU funding structure and techniques for composing research proposals.

This even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South Korea and Sweden’s ongoing global cooperation and academic interactions, boosting research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as well as networks of Korean and Swedish researchers, startups, univers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칼-올로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좌)와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우)



스웨덴 룬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애들링 교수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 등 5개 국립대, 대학과 지역이 어울리는 ‘오지다’ 한마당

Five National Universities, Including CNU, Hold Vibrant “Ojida” Festival, Celebrating University-Community Collaboration ‘Arise PNU, Higher Together’ Embarking on a New Path for PNU

전남대학교 등 5개 국립대학의 연합축제 ‘오지다’가 11월 21일 전남대 캠퍼스에서 열리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됐다. ‘오지다’는 전남대를 비롯해 광주교대,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가 함께하는 다섯 개의 광주전남 국립대학 연합축제다. 대학 간 협력을 다지며, 대학의 성과를 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오지다’는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이날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과 어린이 등 1,000여 명의 지역민이 공연과 특강,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사회자도 특별했다. 전남대 화학공학부 23학번 최은지 학생과, 97학번 동문이자 최은지 학생의 아버지 최홍연이 축제 사회를 맡으면서,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선배이자 후배, 부녀 간의 조화를 보는 재미를 더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참여대학은 물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어울리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The Ojida festival, a collaborative event among five national universities including CNU, was held on November 21 on the CNU campus, creating a harmonious space for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to come together.

Ojida is a joint festival involving CNU,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and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festival, the second of its kind following last year’s event, aim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showcase their achievements to the local community.

The festival was open to both university members and local residents. Over 1,000 local participants, including high school seniors who had completed the college entrance exam, children, and others, enjoyed various performances, lectures, and prize draws.

The event had a special touch with two hosts: CNU’s Chemical Engineering student, Choi Eun-ji (class of ‘23), and her father, Choi Hong-yeon, a graduate from the class of ‘97, adding a unique dynamic of intergenerational and university-community harmony.

President Jung remarked, “This event became a meaningful occasion where not only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but also the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came together.”



전남대 용봉학술제, 연구와 산학협력 성과 한 자리에

CNU Yongbong Academic Festival: A Showcase of Research and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Achievements



전남대학교가 그간의 연구와 산학협력 성과를 망라한 ‘2024 용봉학술제’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캠퍼스에서 열었다.

용봉학술제는 지난해부터 산학협력단의 ‘테크페어’와 대학원 ‘지(Graduate)-페어’를 통합해 열고 있으며, 올해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RIS)의 성과도 함께하며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우수 특허기술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산학협력 성과물 전시와, 사업화를 위한 기술 상담, 투자유치 IR 등 다양한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되는 한편, 11개 단과대학이 참여해 151건의 구두 발표와 364편의 포스터 발표 등 풍성한 연구발표와 학술 워크숍도 이어졌다. 행사장 안팎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만들기 체험,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 챌린지마켓, 반도체 제조공정,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해는 대학 구성원과 기업 관계자, 지역민 등 2,500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대학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으로서 용봉학술제의 진가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CNU held the 2024 Yongbong Academic Festival from November 26 to 28 on campus, showcasing the university’s achievements in research and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The Yongbong Academic Festival, which has been integrated with the Tech Fair by the CNU R&BD Foundation and the Graduate School’s G-Fair (Graduate-Fair) since last year, was even more enriching this year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wangju-Jeonnam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GJRIP), showcasing its achievements. Exhibitions on outstanding patent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achievements, and programs for technology consultations and investment attraction were featured. Additionally, 151 oral presentations and 364 poster presentations from 11 colleges offered abundant research sharing and academic workshops.

Various interactive activities also captivated attendees, including DIY experiences for startup promotion, a youth challenge market for small businesse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demonstrations, and virtual reality experiences.

This year, the festival attracted over 2,500 participants, including university members, business stakeholders, and local residents, receiving high praise for showcasing the university’s current and future potential.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 학생 서비스 만족도 ‘6년 연속 1위’

JBNU Ranks First in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for 6 Consecutive Years



2024 KS-SQI 인증 수여식

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2024년 11월 5일(화) 10:30~13:00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주최 한국표준협회·중앙일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서비스경영학회



전북대학교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4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1위다. 전북대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9번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대학별로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개별면접과 인터넷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전북대는 서비스 결과와 상호작용, 환경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12개 세부 평가 분야에서 모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전북대가 수년째 학생들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기반은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전북대는 지난해 대학가의 가장 큰 화두였던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당당히 선정되며 국내 Top10 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북대는 모집단위 광역화 등 학생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 중심 대학을 실현시키고 있다. 계열별로 입학해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가장 잘 맞는 전공 분야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부터 106개 학과의 모집단위를 46개로 광역화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한 전학전과 비율과 복수전공을 크게 확대해 학문간 경계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모듈전공 개설과 전공선택제 운영, 디지털 역량교육 인증제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모듈형 학사 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지역의 대학들과도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지역의 학습 및 연구 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학생들과의 밀착형 소통을 통해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나섰고, 학생들과의 소통데이 등을 상시적으로 마련해 실제 대학 정책에 반영하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JBNU인터내셔널 라운지와 중앙도서관 중도라운지 등 학생 복지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등 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 중심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전북대가 6년 연속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시대에 걸맞은 학생 중심의 대학문화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BNU) has been named the top local national university in the 2024 Service Quality Index Assessment conducted by th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This marks the sixth consecutive year, starting in 2019, that JBNU has earned this distinction. In total, JBNU has claimed the top spot nine times, including in 2012,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and 2023.

The assessment measures student satisfaction through one-on-one interviews and online panel surveys targeting enrolled students, excluding freshmen. JBNU scored highest in areas such as service outcomes, interactions, and environment, achieving over 80 points in all 12 de-

tailed evaluation categories.

The foundation of JBNU's sustained reputation as the university that provides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students lies in its strong commitment to student support. Last year, JBNU was proudly selected as a participant in the highly competitiv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solidifying its status among Korea's top 10 universities. Through this initiative, JBNU has been transforming into a student-centered university by expanding academic options and enhancing students' autonomy in choosing their majors.

Starting with the 2025 academic year, JBNU will reorganize the recruitment units of its 106 departments into 46 broader categories, admitting new students without fixed majors. This will allow students to explore their career paths and select the field of study best suited to their interests and strengths. Additionally, JBNU plans to significantly increase opportunities for transferring between departments, changing majors, and pursuing double majors, enabling students to cross traditional academic boundaries. The university has also introduced modular majors, major selection systems, and a digital competency certification program. These innovations are part of JBNU's effort to create a regionally tailored, modular academic structure and to actively share its excellent infrastructure with other universities in the region, reducing disparities in learning and research environments.

Notably, President Yang O-bong has prioritized close communication with students since taking office, strengthening student welfare by incorporating their feedback into university policies through regular events like “Student Communication Day.” Recent improvements include expanding student welfare facilities such as the JBNU International Lounge and the Central Library Lounge, all aimed at enhancing students' educational competitiveness.

President Yang O-bong remarked, “It is highly significant that JBNU has ranked first in the Service Quality Index Assessment for six consecutive years as we transition into a student-centered university. We are committed to creating a university culture that aligns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freely pursue their studies in the best possible conditions.”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Information to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고창섭 President Koh Chang-seop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모두의 더 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Great Challenge for our future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양오봉 President Yang O-Bong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라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성택 President Jung Sungtae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유홍림 President Honglim Ryu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정겸 President Kim Jeong-Kyoun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2020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nstruction completed in 2020.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일환 President Kim, Eel-hwa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재연 President Jeong Jae-Yeon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2021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Based on 2021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mployment Statistics)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허영우 President Young-Woo Heo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공자·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 양성
- 2022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국내 1위, 세계 13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13th in 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22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최재원 President Choi Jae Weo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권진희 President Jin-Hwe Kweon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33, Dongjin-ro, Jinju, Gyeongsangnam-do,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국립대학교 출범(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
- 생명과학, 항공우주기계, 나노신소재·화학 분야 특성화 성공 대학
- '글로벌대학 사업' 선정...우주항공·방산 분야 글로벌 선도대학 GNU

- Launche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n March 1, 2021 (Integration of GNU and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University specializing in life sciences, aerospace engineering, nanomaterials, and chemistry
- Selected for the "Glocal University Project"...GNU, a leading global university in the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